

# 『鄉藥集成方』 「鍼灸目錄」에 대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sup>1</sup>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sup>2</sup> · 한국전통의학연구소<sup>3</sup>  
엄동명<sup>1, 3</sup> \* · 심현아<sup>1, 2</sup> · 송지청<sup>1, 2</sup>

## A Study on Acupuncture list of 『Hangyakjipseongbang』

Eom Dong-myung<sup>1, 3</sup> \* · Sim Hyun-a<sup>1, 2</sup> · Song Ji-chung<sup>1, 2</sup>

<sup>1</sup>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Prof.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3</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cupuncture list of 『Hangyakjipseongbang』 had written based on 『Zhenjiuzishengjing』. However, there are only 258 acupuncture points instead of 364 full points. In the text, there are 8 prohibited points for moxibustion and 7 prohibited points for acupuncture. Also there are rules about depth & period of acupuncturing, about careful selecting of points for children and the pregnant and about the methods of acupuncturing by using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key words** : Hangyakjipseongbang, Acupuncture, Zhenjiuzishengjing

## I. 序 論

『鄉藥集成方』은 조선 세종대에 편찬된 의서로 『醫方類聚』, 『東醫寶鑑』과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의학서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은 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등이 『鄉藥濟生集成方』을 기본으로 하고 다시 제방서를 참고하여 세종 15년에 완성하였는데, 병증 959항, 처방 10706방, 침구법 1416조, 향약본초 및 포제법 등을 포함하여 8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sup>

이 책은 조선 후기까지 두루 사용되어 독자적인 경험의학을 형성케 하는 등 한의학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鄉藥本草는 자국산 한약재의 개발과 의약에 있어서 宜土性이 강조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일조하였다.<sup>2)</sup>

그동안 『鄉藥集成方』 관련 연구로는 인용문헌에 대한 분석<sup>3)</sup>, 鄉藥에 대한 연구<sup>4)</sup>, 남북한 용어비교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원전학교실

E-mail: haksan@wku.ac.kr

Tel : 063-850-6941.

Fax : 063-851-6941.

접수일(2010년 11월2일), 수정일(2010년 11월15일),

게재확정일(2010년 11월16일)

1)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p. 216 요약. 1981.

2)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7권 1호. pp. 67~68. 2001.

3) 김남일.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87. 1999. 김중권.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분석. 서지학연구 35집. 2006. 등이 있음.

4) 강연석, 안상우. 향약집성방 중 향약본초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8권 1호. 2002. 강연석, 안상우. 향약집성방 중 상한문의 본초분석을 통해 본 조선시대 향약의학.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8권 2호. 2002. 김호. 여말선초 향약론의 형성과 향약집성방. 진단학보 87.

연구<sup>5)</sup>, 편찬배경에 대한 연구<sup>6)</sup>, 『鄉藥集成方』 DB화에 대한 연구<sup>7)</sup>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나, 「鍼灸目錄」은 그동안 관심 대상에서 비켜 있었다.

『鄉藥集成方』의 「鍼灸目錄」은 ‘出資生經’이라 하여 그 내용을 『鍼灸資生經』에서 가지고 왔다고 밝히고 있다. 『鍼灸資生經』은 1220년 王執中이 편찬한 서적으로, 각종 침구 문헌을 참고하고 저자 본인의 침구 임상 경험을 결합하여 鍼灸에 대한 내용을 계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sup>8)</sup> 이 책은 송이전의 경혈연구를 참고하여 혈위를 바로잡고 임상에 有效한 경혈의 응용을 증시하였으며, 뜸법에 관한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또한 취혈법으로 동신촌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질병에 따른 취혈법에 있어서 매 병증마다 자신의 경험을 첨가하여 침구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sup>9)</sup>.

본 논문에서는 『鄉藥集成方』에 수록되어 있는 「鍼灸目錄」 내용을 『鍼灸資生經』에 수록된 내용과 비교해 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本 論

『鄉藥集成方』에 수록되어 있는 「鍼灸目錄」은 서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학대계에 수록된 『鄉藥集成方』에는 「鍼灸目錄」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적본 『鄉藥集成方』, 행림서원에서 간행한 『鄉藥集成方』, 영림사에서 간행한 국역 『鄉藥集成方』에는 목록 다음에 수록되어 있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8기

졸업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새천년 鄉藥集成方』에는 향약산지별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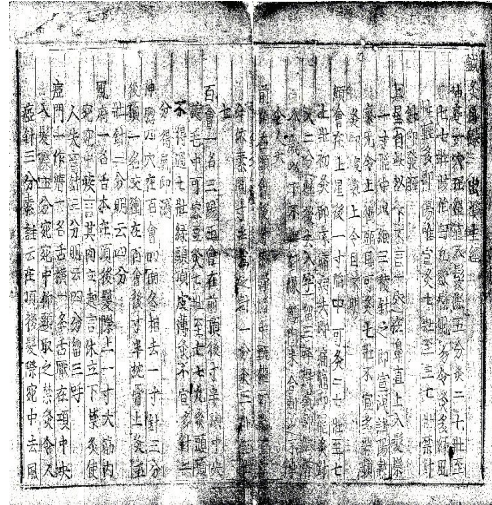


그림 1. 한독소장본 『鄉藥集成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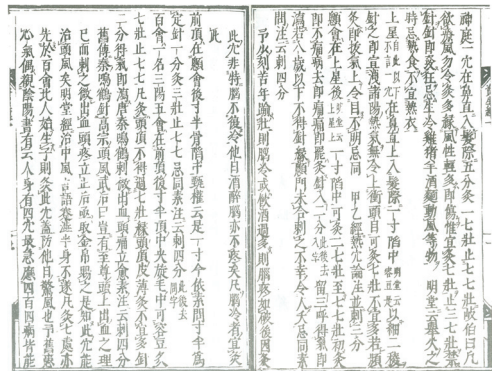


그림 2. 침구의학전적대계 『鍼灸資生經』

1999. 남풍현. 향약집성방의 향명에 대하여. 진단학보 87. 1999. 등이 있음.
- 5) 이경미. 남북한 한의학 전문용어 비교 - 국역 향약집성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6) 정면. 향약집성방의 편찬에 대한 소고. 대한원전외사학회지 5권. 1991. 이태진. 향약집성방 편찬의 정치사상적 배경과 의의. 진단학보 87. 1999. 등이 있음.
- 7) 허봉희. 鄉藥集成方의 藥學의 研究와 DATABASE化. 진단학보 87. 1999.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7권 1호. 2001. 등이 있음.
- 8)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의사문헌편. 1985.
- 9)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pp. 244~245 요약. 서울. 탐구당. 1997.

여기에서는 행림서원에서 간행한 『鄉藥集成方』과 침구의학전적대계에 수록되어 있는 『鍼灸資生經』을 대상으로 원문을 비교 고찰하였다.

그림 3. 형립서원본 『鄉藥集成方』 「鍼灸目錄」

### 1. 「鍼灸目錄」에 수록한 경혈과 서술 방식

『鍼灸資生經』에는 모두 364개 경혈이 수록되어 있는데, 『鄉藥集成方』에는 모두 258개 경혈이 수록되어 있어서 자생경보다 106개 경혈이 적다.(부록 1. 참조.)

『鍼灸資生經』에서는 偃伏頭部中行十穴 偃伏第二行 左右十四穴 偃伏第三行左右十二穴 側頭部左右二十六穴 正面部中行六穴 面第二行左右十穴 …… 手太陰肺經左右十八穴 手陽明大腸經左右二十八穴 手少陰心經左右十八穴 手太陽小腸經左右十六穴 …… 足太陰脾經左右二十二穴 足陽明胃經左右三十穴 足少陰腎經左右二十穴 足太陽膀胱經左右三十六穴에 이르기까지 모두 24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부위별 혈위를 앞부분에 싣고, 부위별 혈위에서 설명하지 않은 경혈은 다시 경맥별로 분류하여 수경을 먼저 언급하고 족경을 뒤에 언급하였다. 하지만 『鄉藥集成方』에 실려있는 내용은 경혈 나열 순서는 『鍼灸資生經』과 같지만 『鍼灸資生經』에서 분류한 24개 항목 분류는 하지 않았다.

내용 서술방식은 『鍼灸資生經』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 2. 내용 비교

설명 내용은 경혈명칭, 경혈 갯수, 혈자리 위치를 앞부분에서 밝혀 놓았고, 뜸뜨는 횟수, 침자깊이, 유침시간, 금기사항, 기타 설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설명내용의 순서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여 서술하였다.

표 2에서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보면, 上星穴에 대한 설명 가운데 ‘忌同. 甲乙經, 熱穴論注, 並刺三分.’ 顛會穴에 대한 설명 가운데 ‘忌同. 素問注云 刺四分. 予少刻苦, 年逾壯則腦冷, 或飲酒過多, 則腦疼如破. 後因灸此穴, 非特腦不復冷, 他日酒醉, 腦亦不疼矣. 凡腦冷者宜灸之.’ 前頂穴에 대한 설명 가운데 ‘忌同. 素注云刺四分.’ 百會穴에 대한 설명 가운데 ‘唐秦鳴鶴刺微出血, 頭痛立愈. 素注云刺四分.’ 내용은 『鄉藥集成方』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표 1. 『鄉藥集成方』 內容

<p>神庭 一穴, 在鼻直入髮際五分, 灸二七壯, 至七七壯. 岐伯曰 凡欲療風, 勿令灸多, 緣風性輕, 多即傷, 唯宜灸七壯, 至三七壯. 禁針即發狂.</p> <p>上星 (自此以下 不言一穴) 在鼻直上入髮際一寸陷中. 以細三稜針刺之, 即宣洩諸陽熱氣, 無令上衝頭目. 可灸七壯, 不宜多, 若頻灸即拔氣上, 令目不明.</p> <p>顛會 在上星後一寸陷中. 可灸二七壯至七七壯, 初灸即不痛, 病去即痛, 痛即罷灸. 針入二分(此後去入字), 留三呼, 得氣即瀉. 若八歲以下, 不得針, 緣顛門未合, 刺之, 不幸令人夭.</p> <p>前頂 在顛會後寸半骨陷中.(甄權云 是一寸. 今素問寸半爲定.) 針一分, 灸三壯, 至七七.</p> <p>百會 一名三陽五會. 在前頂後寸半, 頂中央旋毛中, 可容豆. 灸七壯, 至七七. 凡灸頭頂, 不得過七壯, 緣頭頂皮薄, 灸不宜多. 針二分, 得氣即瀉.</p>
--

표 2. 『鍼灸資生經』 內容

<p>神庭 一穴, 在鼻直入髮際五分, 灸二七壯, 止七七壯. 岐伯曰 凡欲療風, 勿令灸多, 緣風性輕, 多即傷, 惟宜灸七壯, 止三七壯. 禁針, 針即發狂. 忌生冷雞豬羊酒麵動風等物. 明堂云 舉火之時, 忌熟食, 不宜熱衣.</p> <p>上星 (自此以下 不言一穴) 在鼻直上入髮際一寸陷中(明堂云 容豆是). 以細三稜針之, 即宣洩諸陽熱氣, 無令上衝頭目. 可灸七壯, 不宜多, 若頻灸即拔氣上, 令目不明, 忌同. 甲乙經, 熱穴論注, 並刺三分.</p>
--

顛會 在上星後(明堂云上星上)一寸陷中,可灸二七壯至七七壯,初灸即不痛,病去即痛,痛即罷灸。針入二分(此後去入字),留三呼,得氣即瀉。若八歲以下,不得針,緣顛門未合,刺之,不幸令人夭,忌同。素問注云 刺四分。予少刻苦,年逾壯則腦冷,或飲酒過多,則腦疼如破。後因灸此穴,非特腦不復冷,他日酒醉,腦亦不疼矣。凡腦冷者宜灸之。

前頂 在顛會後寸半骨陷中。(甄權云 是一寸。今依素問寸半爲定。)針一分,灸三壯,至七七。忌同。素注云刺四分。

百會 一名三陽五會。在前頂後寸半,頂中央旋毛中,可容豆。灸七壯,止七七。凡灸頭頂,不得過七壯,緣頭頂皮薄,灸不宜多。針二分,得氣即瀉。唐秦鳴鶴刺微出血,頭痛立愈。素注云刺四分。

### 3. 禁灸穴

『鄉藥集成方』에 언급한 禁灸穴은 風府, 瘰門, 承光, 睛明, 下關, 少商, 天府 등 모두 7군데이다. 이 가운데 風府穴<sup>10)</sup>은 失音할 수 있기 때문에, 瘰門穴<sup>11)</sup>은 병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天府穴<sup>12)</sup>은 逆氣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뜸을 뜨지 말라고 하였다.

耳門穴<sup>13)</sup>이나 勞宮穴<sup>14)</sup>은 禁灸穴은 아니지만 明堂經에서는 禁灸穴로 되어 있다는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뜸을 뜨기 위하여 選穴할 경우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禁鍼穴

『鄉藥集成方』에서 언급한 禁鍼穴은 神庭, 督俞, 臚中, 水分, 神闕, 石門, 氣衝, 承筋 등 모두 8군데이다. 이 가운데 특히 神庭穴<sup>15)</sup>에는 針刺하면 發狂하고, 臚中穴<sup>16)</sup>에는 針刺하면 일찍 죽을 수 있고, 水分穴<sup>17)</sup>에는 針刺하면 사망한다고 하였으며, 石門穴<sup>18)</sup>은

여자인 경우 일생동안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침자를 금지하는 이유도 언급하였다. 關元穴<sup>19)</sup>은 八分 깊이로 針刺한다 하면서도 明堂經을 인용하여 임신하였을 경우는 침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 5. 기타 금지사항

上關穴<sup>20)</sup>에는 깊이 침자하지 말라 하였는데, 만약 깊이 침자하면 하품은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릴 수 없다고 하였다. 下關穴<sup>21)</sup>에는 오래도록 留針하지 말라 하였는데, 만약 오래 留針하면 입을 크게 벌릴 수는 있는데 하품을 하지는 못하며 牙關이 급해진다고 하였다.

顛會穴<sup>22)</sup>에는 나이에 따라 침자를 금지하였는데, 八歲以下인 경우는 顛門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침자하면 夭折할 수 있다는 이유로 針刺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肩井穴<sup>23)</sup>은 深刺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 6. 補瀉를 언급

『鄉藥集成方』 「鍼灸目錄」에는 특이하게 針刺하는 과정에서 補瀉를 언급한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氣海穴<sup>24)</sup>에는 八分 깊이로 침자하는데 得氣를 하면 瀉하고, 瀉한 후에는 補해야 하니 뜸을 百壯 뜬다고 하였으며, 曲池穴<sup>25)</sup>에는 七分 깊이로 침자하는데 得氣하면 먼저 瀉하고 후에 補하는데 뜸을 뜨면 좋다고 하였으며, 上腕穴<sup>26)</sup>에는 먼저 補하고 후에 瀉하라고

10) 禁灸, 使人失音. 이태호. 鄉藥集成方. 鍼灸目錄 p. 1. 서울. 행림출판사. 1977.

11) 禁灸, 令人瘖. 上揭書. 鍼灸目錄 p. 1.

12) 禁灸, 使人逆氣. 上揭書. 鍼灸目錄 p. 5.

13) 耳門: 灸三壯(明下云禁灸, 有病不過三壯.). 上揭書. 鍼灸目錄 p. 2.

14) 勞宮: 灸三壯(明云針二分, 得氣即瀉, 只一度針, 過兩度令人虛, 不得灸, 灸令息肉日加)(素註灸三壯.). 上揭書. 鍼灸目錄 p. 6.

15) 禁針即發狂. 上揭書. 鍼灸目錄 p. 1.

16) 禁針, 不幸令人夭. 上揭書. 鍼灸目錄 p. 4.

17) 禁針, 針水盡即斃. 上揭書. 鍼灸目錄 p. 4.

18) 婦人不可針, 針之終身絕子. 上揭書. 鍼灸目錄 p. 4.

19) 針八分(明云若懷妊, 必不針). 上揭書. 鍼灸目錄 p. 5.

20) 禁針深. 若刺深, 令人欠而不得坎. 上揭書. 鍼灸目錄 p. 2.

21) 不得久留針, 側臥閉口取穴. 上揭書. 鍼灸目錄 p. 2.

22) 若八歲以下, 不得針, 緣顛門未合, 刺之, 不幸令人夭. 上揭書. 鍼灸目錄 p. 1.

23) 若刺深, 則令人悶倒不識人. 上揭書. 鍼灸目錄 p. 2.

24) 針八分, 得氣即瀉, 瀉後宜補之. 灸百壯. 上揭書. 鍼灸目錄 p. 4.

25) 針七分, 得氣先瀉後補之, 灸大良. 可灸三壯. 上揭書. 鍼灸目錄 p. 6.

26) 針八分, 先補後瀉, 日灸二七壯至百壯, 未愈倍之. 上揭書. 鍼灸目錄 p. 4.

하였고, 肩井穴<sup>27)</sup>에는 먼저 補하는데 瀉하지 말라 하였다. 聽會穴<sup>28)</sup>에는 七分 깊이로 침자하여 三呼동안 유침하는데 得氣하면 瀉하고 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天柱穴<sup>29)</sup> 또한 得氣하면 瀉하라고 하였다.

또한 일정 깊이만큼 침자하여 일정 시간동안 留針하는데 그 사이 攢竹에는 三吸하는 동안 瀉하고, 大椎, 天柱, 腰脇, 諶諶, 鳩尾, 中腕, 下腕, 水分, 關元, 少商, 列缺, 委中에는 五吸하는 동안 瀉하고, 風池, 三裏에는 七吸하는 동안 瀉하라고 하였다.

### III. 結 論

『鄉藥集成方』『鍼灸目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鍼灸資生經』과 비교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鄉藥集成方』『鍼灸目錄』에서는 『鍼灸資生經』과 마찬가지로 먼저 부위별로 경혈을 설명하고 다음에 경맥별로 경혈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혈 설명은 우선 혈자리 위치를 설명하고, 다음에 뜸을 뜨는 횟수, 침자깊이, 유침시간, 기타내용 등의 순서로 일관성을 유지하여 서술하였다.
- 『鍼灸資生經』과 비교해 볼 때 106개혈은 수록하지 않았으며, 수록한 내용은 『鍼灸資生經』보다 간략하게 번잡함을 피하였다.
- 禁灸穴로 제시한 곳은 風府, 瘰癧, 承光, 晴明, 下關, 少商, 天府 등 모두 모두 7군데이다.
- 禁鍼穴로 제시한 곳은 神庭, 督俞, 臆中, 水分, 神闕, 氣衝, 承筋 등 모두 8군데이다. 특히 神庭에는 침자하면 發狂하고, 臆中이나 水分에 침자하면 사망한다고 하였다.
- 기타 금지사항으로 上關穴에는 深刺하지 말 것, 下關穴에는 오래 留針하지 말 것, 顛會穴에는

八歲以下인 경우 針刺하지 말라 하였다. 또한 耳門穴과 勞宮穴에 대해서는 이들은 禁灸穴은 아니지만 明堂經에 禁灸穴로 되어 있다는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신중하게 選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氣海, 曲池는 先瀉後補, 上腕은 先補後瀉, 肩井은 先補不瀉, 聽會, 天柱는 得氣則瀉하라고 한 것처럼 자침방법에 있어서 보사를 언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사법 뿐만 아니라 자침한 상태에서 三吸, 五吸, 七吸하는 동안 瀉하라 하여 일정 시간 유침하는 방법으로 보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 參考文獻

- 강연석, 안상우, 향약집성방 중 상한문의 본초 분석을 통해 본 조선시대 향약의학. 한국한의학 연구원논문집 8권 2호. 2002.
- 강연석, 안상우, 향약집성방 중 향약본초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8권 1호. 2002.
-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7권 1호. 2001.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48기 졸업준비위원회. 새천년향약집성방. 서울. 정담. 2000.
- 김남일,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87. 1999.
- 김남일. 중국침뜸의학의 역사. 서울. 탐구당. 1997.
-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p. 216 요약. 1981.
- 김중권.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분석. 서지학연구 35집. 2006.
- 김호. 여말선초 향약론의 형성과 향약집성방. 진단학보 87. 1999.
- 남풍현. 향약집성방의 향명에 대하여. 진단학보 87. 1999.

27) 先補不瀉, 須臾平復如故. 上揭書. 鍼灸目錄 p. 2.

28) 針七分, 留三呼, 得氣即瀉, 不須補. 上揭書. 鍼灸目錄 p. 2.

29) 針五分, 得氣即瀉. 上揭書. 鍼灸目錄 p. 2.

11. 이경미. 남북한 한의학 전문용어 비교 - 국역 향약집성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2.
12. 이태진. 향약집성방 편찬의 정치사상적 배경과 의의. 진단학보 87. 1999.
13. 정면. 향약집성방의 편찬에 대한 소고. 대한원전 의사학회지 5권. 1991.
14. 出版科學綜合研究所. 鍼灸資生經 一. 鍼灸醫學典籍大系 第8권. 大阪. コーディック. 昭和54年.
15. 王執中. 鍼灸資生經. 서울. 일증사 影印. 1991.
16.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의사문헌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17. 이태호. 향약집성방. 서울. 행림출판사. 1977.
18. 허봉희. 鄉藥集成方의 藥學的 研究와 DATABASE化. 진단학보 87. 1999.

## 부록 1. 『鄉藥集成方』『鍼灸目錄』 목차

神庭	率穀 *	上關	風門
上星	曲鬢	下關	肺俞
顙會	角孫	前關 *	厥陰俞
前頂	竅陰 *	和膠	心俞
百會	浮白	聽會	督俞
神聰	顙息 *	耳門	膈俞
明堂 * <sup>30)</sup>	瘦脈 *	聽宮 *	肝俞
後頂	完骨	頰車 <sup>39)</sup>	膽俞
強間 *	翳風 <sup>34)</sup>	肩井	脾俞
腦戶 *	素膠 *	天膠 *	胃俞
風府	水溝	巨骨	三焦俞
瘡門 <sup>31)</sup>	兌端	臑會	腎俞
曲差	斷交	肩髃	氣海俞 *
五處	承漿	肩膠 *	大腸俞
承光	廉泉 <sup>35)</sup>	肩貞	關元俞 *
通天	攢竹	天宗 *	小腸俞
絡卻	晴明	秉風 *	膀胱俞
玉枕	巨膠	臑俞 *	中膺俞 <sup>42)</sup>
天柱 <sup>32)</sup>	迎香	曲垣 *	白環俞 *
臨泣	禾膠 * <sup>36)</sup>	肩外俞 *	上膠 *
目窓	陽白	肩中俞 * <sup>40)</sup>	次膠 *
正營	承泣 *	大椎	中膠 *
承靈	四白 *	陶道 *	下膠 *
腦空	地倉	身柱	會陽 <sup>43)</sup>
風池	大迎 <sup>37)</sup>	神道	附分 *
當陽 <sup>33)</sup>	本神 *	靈臺 *	魄戶
頷厭 *	絲竹空 *	至陽 *	膏肓俞
懸顙 *	瞳子膠	筋縮	神堂
懸釐 *	顙膠 *	脊中 *	諶諶
天衝 *	頭維 * <sup>38)</sup>	懸樞	隔關 *
		命門	魂門 *
		陽關 *	陽綱
		腰脇	意舍
		長強 <sup>41)</sup>	胃倉
		大杼 *	盲門 *

30) \* 표시는 『鍼灸資生經』에는 있는데 향약집성방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經穴을 표시함.

31) 이상 偃伏頭部中行穴

32) 이상 偃伏第二行穴

33) 이상 偃伏第三行穴

34) 이상 側頭部穴

35) 이상 正面部中行穴

36) 이상 面第二行穴

37) 이상 面第三行穴

38) 이상 面第四行穴

39) 이상 側面部穴

40) 이상 肩膊部穴

41) 이상 背俞部中行穴

志室	中府	氣穴	孔最
胞肓*	周榮	大赫	尺澤
秩邊* <sup>44)</sup>	胸鄉	橫骨 <sup>52)</sup>	俠白*
天容	天谿	不容	天府 <sup>56)</sup>
天膈*	食竇 <sup>49)</sup>	承滿	商陽
天窓	淵腋*	梁門	二間
天鼎*	輒筋*	關門	三間
扶突*	天池	太一	合穀
缺盆	大包 <sup>50)</sup>	滑肉門	陽谿
人迎*	鳩尾	天樞	偏歷
水突*	巨闕	外陵	溫溜
氣舍 <sup>45)</sup>	上脘	大巨	下廉
天突	中脘	水道	上廉
璿璣	建裏	歸來	三裏
華蓋	下脘	氣衝 <sup>53)</sup>	曲池
紫宮	水分	期門	肘髎*
玉堂	神闕	日月	五裏*
膻中	陰交	腹哀	臂臑* <sup>57)</sup>
中庭 <sup>46)</sup>	氣海	大橫	少衝*
臑府	石門	腹結*	少府*
或中	關元	府舍*	神門
神藏	中極	衝門* <sup>54)</sup>	陰郤*
靈墟	曲骨	章門	通裏*
神封	會陰 <sup>51)</sup>	京門*	靈道*
步郎 <sup>47)</sup>	幽門	帶脈	少海
氣戶	通穀	五樞*	青靈*
庫房	陰都	維道*	極泉* <sup>58)</sup>
屋翳	石關	居髎*	少澤
膺窓	商曲	脊堂* <sup>55)</sup>	前穀*
乳中*	育俞	少商	後谿
乳根 <sup>48)</sup>	中注	魚際*	腕骨
雲門	四滿	太淵*	陽穀
		經渠*	養老*
		列缺	支正

42) 『鍼灸資生經』에는 中膺內俞로 되어 있음

43) 이상 背俞第二行穴

44) 이상 背俞第三行穴

45) 이상 側頸項部穴

46) 이상 膺俞部中行穴

47) 이상 膺俞部第二行穴

48) 이상 膺俞部第三行穴

49) 이상 膺俞部第四行穴

50) 이상 側腋穴

51) 이상 腹部中行穴

52) 이상 腹第二行穴

53) 이상 腹第三行穴

54) 이상 腹第四行穴

55) 이상 側脊穴

56) 이상 手太陰肺經穴

57) 이상 手陽明大腸經穴

58) 이상 手少陰心經穴

小海 <sup>59)</sup>	地五會 *	犢鼻
中衝	臨泣	梁丘
勞宮	丘墟	陰市
大陵 <sup>60)</sup>	懸鍾	伏兔
內關	陽輔	髀關 *
間使	光明	膝眼 * <sup>66)</sup>
卻門 *	外丘	湧泉
曲澤	陽交	然穀
天泉 * <sup>61)</sup>	陽陵泉	大谿 <sup>67)</sup>
關衝 *	陽關	大鍾 *
液門 *	中瀆	水泉
中渚	環跳	照海
陽池	風市 <sup>64)</sup>	復溜
外關	隱白	交信
支溝	大都	築賓
會宗 *	太白 *	陰穀 <sup>68)</sup>
三陽絡 *	公孫	至陰 *
四瀆	商丘	通穀 *
天井	三陰交	束骨 *
清冷淵 *	漏穀	京骨
消灤 * <sup>62)</sup>	地機	申脈
大敦	陰陵泉	金門 *
行間	血海 *	僕參 *
大衝	箕門 * <sup>65)</sup>	崑崙
中封	厲兌 *	付陽 <sup>69)</sup>
蠡溝	內庭	飛陽
中都	陷穀	承山
膝關 *	衝陽	承筋
曲泉	解谿	合陽
陰包	豐隆 *	委中
五裏 *	下廉	委陽
陰廉 <sup>63)</sup>	條口	浮郤
竅陰 *	上廉	殷門
俠谿 *	三裏	扶承 <sup>70)71)</sup>

59) 이상 手太陽小腸經穴

60) 『鍼灸資生經』에는 太陵으로 되어 있음

61) 이상 手厥陰心主脈穴

62) 이상 手少陽三焦經穴

63) 이상 足厥陰肝經穴

64) 이상 足少陽膽經穴

65) 이상 足太陰脾經穴

66) 이상 足陽明胃經穴

67) 太谿穴을 말함

68) 이상 足少陰腎經穴

69) 『鍼灸資生經』에는 跗陽으로 되어 있음

70) 『鍼灸資生經』에는 承扶로 되어 있음

71) 이상 足太陽膀胱經穴

